『한국사회학』 제47집 제1호(2013년), pp. 1~14

연구논문

사회학을 찬미하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금메달 수상 연설**

피에르 부르디외***

번역: 김홍중****

CNRS에서 수여한 금메달을 받으며 개인적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저는 사회학에 대해 제기되는 몇 가지의 근본 문제들에 대해 성찰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학은 자신에게 고유한 방법, 개념,

---

* 편집위원회 주: 이 글은 고(故) 피에르 부르디외의 미간행 원고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동일한 원고는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핀란드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그리스어,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출판될 예정이다. 부르디외의 제자인 로익 바캉(Loïc Wacquant)이 원고의 번역과 출판을 제안했다. 그는 2013년에 『한국사회학』과 『영국사회학회지(*Sociology*)』 등 언어가 다른 13개 저명 저널에 이 연설문을 싣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한국사회학』 편집위원회에서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다. 프랑스어 텍스트의 국문 번역은 김홍중(서울대 사회학과)이 맡았다. 프랑스어 원고 원문에는 아무런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았지만, 로익 바캉이 원고를 영역하면서 "사회학을 찬미하다"라는 제목을 추가하였는데, 이 영문 제목을 국문 번역에 그대로 싣기로 하였다. 또 프랑스어 원고에는 어떤 각주나 레퍼런스도 달려 있지 않았으나, 로익 바캉의 영역 텍스트에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에서 첨가된, 6개의 각주와 관련 텍스트들이 부가되어 있어, 이 부분을 영역 텍스트를 참조하여 김홍중이 번역하였다. 『한국사회학』의 편집 양식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한국어와 영어 요약문과 핵심어 역시 김홍중이 작성하였다. 『한국사회학』 편집위원회에서는 박정호(대구대 사회학과), 신지은(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정철희(전북대 사회학과)에게 번역원고의 검독을 요청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 이를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된 한국어 번역 판본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김홍중에게 있으며, 한국어 번역본의 출판 권한은 한국사회학회가, 그 저작권자인 제롬 부르디외(Jérôme Bourdieu)에게서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 이 연설은 부르디외가 1993년 12월 7일 국립과학연구원(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의 금메달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행해졌다.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문적 영예라 할 수 있는 이 메달은 고등교육연구부 장관(Minist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인 프랑수아 피용(François Fillon)에 의해 수여되었다.

***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 사회학 강좌를 맡고 있었다. 그는 유럽사회학센터, 『사회과학연구지』(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를 이끌었고, 2002년에 작고할 때까지 출판사 레종다지르(Raison d'agir)를 경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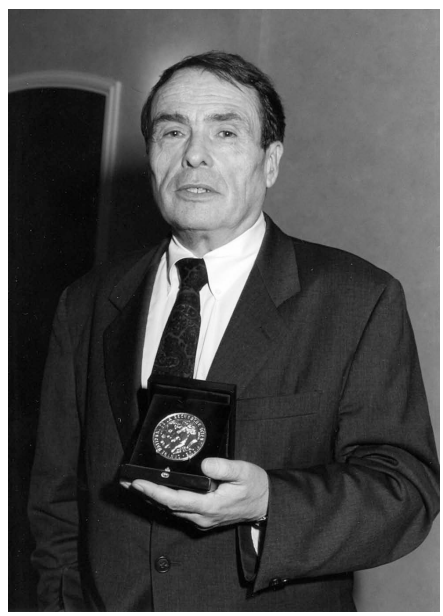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slimciga@hanmail.net)

모델들을 갖고 있는 견고한 경험 과학입니다. 사회학의 과학성이 종종 문제시되는 이유는, 사회학이, 상식에 기초하고 있고, 저널리즘적 정보와 가까운 비과학적 담론체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학성을 객관화시켜 성찰하는 급진적 자기-성찰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런 사회학의 성찰성은 과학장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의 형태로 다른 학문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회학은 과학적 인식을 절대시하는 대신, 과학장의 구조적 구성과 작동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무의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냅니다. 셋째, 시장의 권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국가가 과학을 시민을 조작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이 시점에, 사회학은 비판적 대항-권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또한 기능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학은 공적 서비스로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주제어: 과학장(champ scientifique), 사회적 무의식(inconscient social), 학문 공동체(cité scientifique), 성찰성(réflexivité), 대항-권력(contre-pouvoir), 공적 서비스(service public)

친애하는 장관님,
친애하는 연구원장님,
친애하는 연구원 대표이사님,
친애하는 동료들과 벗들,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마음을 북돋아 주어야 할 이 명예로운 포상 앞에서, 저는 도리어 근심에 휩싸입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적격의 감정마저 갖게 됩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학, 그리고 사회학자들에게 제가 품고 있는 깊은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포상은 학문 공동체가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저의 이 확신입니다. 정계와 학계의 최고 권위자들, 언론계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기회삼아, 저는 사회학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종종 비판적인 몇몇 질문들에 대해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에르 부르디외
© CNRS Photothèque/Nicole TIGET

사회학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실제 효과는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아카데믹한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이나마 저는 모든 사회학자들, 또는 적어도, 자신의 학문이 이처럼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제게 토로한 모든 이들의 대변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공식적 탄원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가장 뛰어난 사회학의 하나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프랑스 사회학은, 진정한 인정에 어울리는 상징적, 물질적 편의를 십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학을 직업으로 삼고자 투신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채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주는 강의 자리나 연구원 자리를 얻을 기회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학문 인생의 가장 중대한 시기를 궁여지책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저는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추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사회학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혜택들이 우선적으로, 유럽사회학센터(Centre de sociologie européenne)와 교육문화사회학센터(Centre de sociologie de l'éducation et de la culture)[1]에서 언젠가 저와 함께 팀을 이뤄 작업했던 분들에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제가 진 빚과 충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팎으로 겪어야 했던 모든 난관의 자취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우리가, 그야말로 뒤르케임주의자의 방식으로, 집합적 작업 스타일을 실천하고자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스타일은, 아직도 문예적 논리를 고수하는 지식인 세계의 전통이나 기대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거만한 이류 거장들을 양산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기발함을 추구하는 태도를 조장하는, 독특함/평범함, 새로움/낡음 등의 세속적 선택지들과도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계의 비참』(Bourdieu et al., 1993)으로 결실이 맺어졌지만 약간 과도하기도 했던 기획에 저와 함께 참가했던

1) 유럽사회학센터는 1959년에 파리에서 레이몽 아롱에 의해 포드 재단의 기금으로 창설되었다. 레이몽 아롱은 경험 연구에서 자신의 경력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1960년에 부르디외를 센터의 총무(secretary)로 선임한다. 1968년 두 사람의 결별 이후, 부르디외는 독립적 연구 그룹을 만든다. 이 그룹은 이후 30년간 그의 연구의 제도적 기초를 이루게 된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에 보관된 레이몽 아롱의 문서고에 대한 성실한 분석에 기초하여 유럽사회학센터의 발생과 초기 기능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문헌으로 다음을 참조할 것(Joly, 2011).

분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같은 분들입니다만) 거의 20여 년 간 『사회과학연구지(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와 그 국제 증보판인 『리베르(Liber)』[2]를 책임지고 이끌어오는데 도움을 제공했던 분들입니다. 지적 모험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만족감 이외에는 어떤 다른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학문 공동체는 그들에 대해서 그다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연구원(CNRS)이나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등, 이들을 수용하고 있거나 수용해야 마땅한 기관들이 이들의 업적을 정당하게 인정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밤 저는 더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회학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던지는 물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그리고 흔히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사회학의 과학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을 정의하는 주요한 특성들을 사회학 또한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율적이며 누적적으로 성장(cumulative)하는 학문인 사회학은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거대한 집합을 설명할 수 있는 정합적 모델의 형태로 가설들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합니다(Bourdieu et al, 1973).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과연 이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 왜냐하면 과학성에 대한 이런 종류의 질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문과 또는 인문대에 속해 있는 표준적 분과학문들에 대해서는 결코 제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과 학부에 속한 학문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 중 가장 덜 체계화된 분과에 대해서조차 그런 질문은 제기되지 않습니다.

기실 사회학은 언제나 (특히 보수적 집단 속에서는) 정치와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역사학자나 인류학자와 달리, 사회학자의 연구 대상은, 자신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대해서 사회학자 스스로 이런 저런 입장을 갖게 마련이거니와, 연구자인 사회학자 자신이 연구대상인 세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는 불가피하게 이 세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어떤 실천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더 나쁜 경우로서) 선입관에 사로잡힐 위험을 항상적으로 감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외한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와 같은 위험은

2) 『사회과학연구지』는 1975년에 창간되었고 유럽사회학센터에서 편집된다. 이 잡지의 생명령은 부르디외의,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이고 국제적인 사회학에 대한 비전에 힘입어 유지되어 왔다. 이 비전은 이론과 경험적 관찰은 물론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혁신적 판본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유럽사회학센터가 책임을 맡고 있는 『리베르』 또한 사회과학, 문학, 그리고 예술의 영역에서 지적 생산물의 국가적 한계를 넘어서고 유통을 가속화한다는 목적 하에, 최전방의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리뷰를 담당했다. 이 잡지는 1989년에서 1998년 사이에 유럽 12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다양한 판본으로 출판되었다.

사실상 훨씬 더 경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에 특히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매우 강력한 방어 도구들의 무기고를 사회학은 이미 구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학문 세계들의 논리인 경쟁의 논리가 사회학자 각자에게 강제와 통제로 작용하면서 그들을 무겁게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이 부담은 곧 다른 모든 사회학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사회학자와 그가 살고 있는 세계 사이에는, 다양한 학문적 입장들을 가지고(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들을 표명하는 사회학계 전체가, 하나의 성벽처럼 가로 놓여 있습니다. 교차검열의 논리 또한 사회학자가 세속적 유혹에 빠져들고, 저널리즘과 연루되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사회학자가 그런 유혹과 연루에 함몰된다면 그는 학자들이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대학(collège invisible)"으로부터 배제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Bourdieu, 1991a). 문외한과 저널리스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배제는 무시무시한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저널리스트들은 흔히 수준 차이를 견해 차이로 오해하는데, 견해 차이는 결국 서로 상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장된 순전히 부정적인 독립성이 진정한 자율성으로 승화되어 확립되는 것은, 사회학자가,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획득한 집합적 지식(acquis)을 미리 장악하여 그것에 숙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학이 획득한 집합적 지식은 이미 방대한 것이며, 그것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학문적인 토론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이한 두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학자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집합적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전유한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갈등할 때조차도 이 유산 덕택에 사실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이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학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때 대립은 자신들이 전유한 동일한 유산으로부터 직접 도출된 문제틀(problématique)과 방법론의 구성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회학자들도 존재합니다. 집합적 유산의 상속인들은 유산을 결여하고 있는 이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 대립은 앞서 말한 상속인들 내부의 대립과는 완전히 다른 양태를 띱니다. 유산을 결여하고 있는 사회학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종종 미디어가 기대하는 바와 훨씬 더 밀착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회학의 과학성을 문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환기시키는 가장 극렬한 불협화음은 사실 순전히 사회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용어의 통계적 의미에서) 매우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율적이며 누적적으로 성장해가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과학적 사명에 십분 부합하기 위해서, 사회학은 무엇보다 성찰적이어야 합니다(Bourdieu, 1982, 1993). 사회학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학은,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사회학의 기능이 지닌 과학적 논리를 교란시키는 사회적 효과들을 분석하고 장악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인식 도구들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이런 분석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호모 아카데미쿠스』(Bourdieu, 1984)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저는 사회학 그리고 사회학이 그 안에 속해있는 제도들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그 당시의 제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학문 세계에 대한 사회학은 사회학자들에게는 가히 정언명령과 같은 것이지만, 다른 학문들에게도 역시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학문 세계에 대한 사회학은 가스통 바슐라르(Bachelard, 1938)가 주창했던 "과학 정신의 정신분석(psychanalyse de l'esprit scientifique)"의 가장 효과적인 실현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집합적으로 억압된 사회적 무의식(inconscient social)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무의식은 학문 세계의 사회적 논리에, 선발 위원회를 선발하는 사회적 결정요인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평가하는 기준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에, 학문 행정가를 모집하는 사회적 조건들에 그리고 학문 행정가들이 보이는 행태의 사회적 조건들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무의식은 특히, 가장 젊은 학자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해방시키기는커녕 그것을 억제하고 가로막으면서, 학문적 권위 관계의 비호 하에서 행사되는, 지배의 사회적 관계에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누군가의 창조적 가능성이 충분히 표현되는 것을 금지하면서 학문적 평가의 엄격성으로부터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는, 신입회원선출의 국가적(요사이는 지역적) 네트워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는 자리에서 너무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기에, 저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 대한 그 유명한 언설 중 항상 간과되어온 한 구절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막스 베버는 자신의 학자 동료들이 모인 회중(會衆) 앞에서, 학문의 존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대개는 사적인 자리에서나 허용되었을 법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것은 "왜 대학 교수직에는 항상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선택되지 못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베버가 사용한 언어는 훨씬 더 난폭

합니다). 뛰어난 사회학 전문가로서, 베버는 특정 개인들(이 경우에는 대학의 평범한 인재들과 문교당국자들)을 탓하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이런 사태의 원인을 "인간의 공동작업의 법칙 속에서" 찾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란, 교황이나 미국 대통령의 선출 과정에서 그러하듯, 거의 언제나 "후보 2순위나 3순위"가 선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법칙을 가리킵니다. 베버는 유머와 리얼리즘을 혼합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놀라운 것은 대학에서 종종 잘못된 채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인선(人選)의 수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도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Weber, 2002: 35). 학문 정책이 이런 현실에 대해 체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법칙이 가져올 결과를 좌절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도리어 이 법칙에 대한 인식을 십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실례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모든 연구 시스템 안에 각 학과의 부속 기관으로서 부서(section)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 학과들로 대학이 분할되어 있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런 분과학문들(disciplines)이 부과하는, 다소 자의적이고 학문적으로 도리어 해를 끼치는 규율들(disciplines)에 곤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이 부서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어떤 자유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진리탐구라는 유일한 목표만을 추구해가는 시민들로 구성된 이상적 폴리스(cité)로 "학문 공동체(communauté scientifique)"를 간주하는 이데올로기적 인식은 진리 그 자체에는 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학문 폴리스(cité scientifique)의 실재에 기초하여 그 작동을 분석하는 것, 완전하고 순수한 경쟁과 학문적 진보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은, 테크노크라트들이 그토록 염려하는 학문적 생산성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학문 메커니즘의 통제되지 않은 힘에 이끌린 채 자신들이 종사하는 학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학자들이(이런 학자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생물학자들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자기 학문의 미래에 대한 집합적 장악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과학 사회학자나 과학사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학문 세계의 실제적 기능을 규제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에 대한 집합적 분석을 시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Bourdieu, 1997, 2001).

도대체 어떤 권리로 또는 어떤 특별한 권위의 이름으로 신생 학문에 불과한 사회학이, 감히 자신보다 훨씬 더 진보했으며 안정된 학문들의 작동을 분석하겠다고 나서느냐고, 사람들은 저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회학을 제국주의적이라 비난하

는 이런 행태는 특히 철학자들과 작가들, 그리고 과학지상주의적(scientiste) 자기 확신에 유별나게 경도된 몇몇 학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발견됩니다. 과학사회학의 또 다른 미덕은 바로 이처럼 학문 그 자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오만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학사회학은 사실, 우리를 반과학적 허무주의로 내몰지 않으면서도(시간부족으로 여기에서 충분한 증명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특정 학문을 그 역사적 또는 사회적 기원과 대면하게 합니다. 과학적 진리는, 결코 인간의 두뇌로부터 이미 완전히 무장한 채 솟구쳐 나온, 영원한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매우 특별한 사회적 세계인 과학장(champ scientifique)의 강제와 통제 하에서, 그리고 그 세계의 규칙과 질서 속에서 성취된 특정 유형의 역사적 노동의, 역사적 산물들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만큼이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사회학은 다른 학문들에게, 그들의 역사적 기원과 오류가능성(faillibilité), 그리고 잠정적 타당성의 원칙을 환기시킵니다(Bourdieu, 1975, 1991b, 2001). 그것이 아마도 사회학의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초월적 원리 위에 과학을 정초하려는 시도들이 매번 되풀이 되지만, 그런 시도들은 결국, 제임스 조이스가 묘사한 것처럼, 교황에 의해 선포된 무오류성(infaillibilité)의 자기 선언과 같은 순환 고리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사회학은 역설합니다. 교황의 말은 그의 무오류성 때문에 결코 반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

저는 지금 사회학이 어떤 효용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토니 모리슨에게, 다음 번 소설에서는 백인 인물들도 다룰 작정이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백인 작가에게도 그렇게 묻겠습니까?” 토니 모리슨처럼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흡족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용성과 존재 근거에 대한 질문을, 당신은 물리학자 또는 화학자, 고고학자나 심지어 역사학자에게도 던지십니까?” 이상하게도, 자신 존재의 정당성을 실감하는 것이 사회학자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은 세상이 사회학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과도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회학자들, 그리고 막스 베버가 말했듯이 “국가에 의해 매수되고 특권이 부여된 소(小) 예언가”라는, 불가능하고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학자들이 언제나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회학자에게 바라는 것은,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사활이 걸린

---

3) 부르디외는 여기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사람들(*Dubliners*)』을 암시하고 있다. 그 한 단편에서 친구들이 술집에 모여 교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한다(Joyce, 1967: 168-169).

문제들에 대해 (외견상) 체계적이고 궁극적인 해답을 마치 예언가처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대신 사회학자의 권리로 주장되어야 마땅한 기능, 사회학자에게 고유한 기능은 사회학자의 것이 아닌 양 부정됩니다. 그 기능이란, 모든 다른 분과의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과학적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만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저널리즘이 제기하는 질문들과 단절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회학자가 권력에 봉사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의 설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학자는 정치가를 대신할 수 없으며, 대신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예를 들어, 80퍼센트의 청소년들이 바칼로레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취학아동 100퍼센트가 문자 독해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 등). 하지만 사회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채, 오직 도달해야 할 그 목적만을 제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자기들이 추구한다고 믿는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위험스럽게 좇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객관적 조건을 환기시켜 주는 일입니다.[4] 사회학은 충분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정치가들이 모두를 위한답시고, 그 기초적 작동 법칙조차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세계들을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一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르케임(1895)이 즐겨 말한 바에 의하면, 사회학의 진보를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는, 사회에 대해서 모두가 이미 타고난 선천적 식견(science infuse)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나 관료로 지내 본 사소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사회학이나 관료제의 사회학을 사회학자들에게 주저 없이 가르치려 드는 정치가들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이 조금만 동요해도, 불만에 가득 찬 학생들에게 인문학처럼 포화상태에 빠진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하라고 독려하기 바쁜 정치가들과 저는 생각이 크게 다릅니다. 사회학 연구는 모든 곳에서 권장되어야 하며, 널리 확장되어야 합니다. 즉 무엇보다 먼저 인문대 내에서 사회학 연구는 그 자체로, 그 자체를 위해 권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학, 법학, 의학 단과대 및 정치학 관련 기관과 국립행정

4) 이 부분에서 부르디외는, 1985년 파비우스 정권 하에서 사회주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장-피에르 슈벤느망에 의해 제시된 정책 목표를 암시하고 있다. 이 목표는 모든 연령 코호트의 80퍼센트가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2000년까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정책이 하층 계급의 아카데미에서의 경험과 사회적 궤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뛰어난 사회학적 분석으로는 다음을 볼 것(Beaud, 2002).

학교(ENA)에서 (여기서는 특히 많이) 사회학 연구는, 보충 교육의 자격으로, 권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5)]

사회학적 시선이 행정관, 의사, 고급 공무원, 교수, 언론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적시할 수 있습니다(사회학이 의사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관한 실험이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며, 우리는 그 결과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의 행동,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고객에게 사회학적 시선이 기여할 수 있는 것 역시, 저는 어려움 없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과잉공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학적 시선으로 무장한 이들 전문가들을 오히려 사회의 다양한 곳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소, 병원, 기숙사, 감옥, 그리고 또한 주택단지들, 중고등학교들, 기업들, 즉 고프먼(1964)이 말하는 '총체적 제도(institutions totales)'들에서 말입니다(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일본의 경험 사례를 떠올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사회세계가 존재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세계들의 기능장애를 분석하고 그 갈등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소크라테스적 산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Bourdieu, 1996).

저의 이런 견해를 동업조합 제국주의(impérialisme corporatiste)의 표현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이 발전하고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진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의 일반이익(intérêt général)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학은 자신을 공적 서비스(service public)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회학이 "사회" 또는 사회의 대변자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통치하는 자들의 직접적 욕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좌파건 우파건) 정치가들이 사회과학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간 그들이 여론조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를 보면 됩니다(한 건의 여론조사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좌의 일 년 치 재정의 열 배에서 스무 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란 사실 과학적으로 별 쓸모가 없는데다가 재정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히곤 합니다. 정치가들은 사회세계에 대한 진리

5) 두 주요한 엘리트 대학원(시앙스-포와 ENA)을 가리킨다. 이 두 학교로부터 프랑스 정부와 주도적 기업들에서 명망 있는 정책결정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출된다. 프랑스의 권력장(field of power)에서 이 학교들의 위치와 기능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는 부르디외(Bourdieu, 1989)의 『국가귀족』을 볼 것. 이 수상식에 참석해 있던 많은 각료들과 보좌진들은 이 두 학교들의 졸업생들이었다.

를 인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선동의 합리적 도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에 부여되어 있으며, 사회학만이 수행할 수 있는 책무들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이렇게 사악한 방식으로 학문을 활용하여 시민과 소비자를 조작하고 기만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시장의 강제력에 대해 유일한 자유를 표상하는 국가가, 자신에게 고유한 행위와 (특히 문화, 학문, 문학에 관한) 업무를, 마케팅 조사, 여론조사, 시청률 조사, 그리고 최대 다수의 추정된 기대에 대한 믿을만하다고 추정된 모든 기록들의 독재에 점점 더 종속시키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사회학은, 자신들의 제국을 현실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학(진짜 과학이건 과학으로 추정되는 무엇이건)에 점점 더 의존하는 권력들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비판적 대항-권력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대해 자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도움이 보장하는 경제적 독립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회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성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컨대, 저는 오늘 이 연설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설을 하게 된 상황이 워낙 엄숙하다보니, 저도 엄숙한 어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이유로 제 이야기는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Bachelard, Gaston. 1938. *La Formation de l'esprit scientifique. Contribution à une psychanalyse de la connaissance objective*.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Vrin. (영역. 2002. *The Formation of the Scientific Mind*. London: Clinamen Press).

Beaud, Stéphane. 2002. *80% au bac … et après? Les enfants de la démocratisation scolaire*. Paris: La Découverte.

Bourdieu, Pierre. 1975. "The Specificity of the Scientific Field an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Progress of Reason." *Social Science Information* 14(6): 19-47.

Bourdieu, Pierre. 1982. *Leçon sur la leçon*. Paris: Minuit. (영역. 1994. "Lecture on the Lecture." pp.177-198 in *In Other Words: Essays toward a Reflexive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Bourdieu, Pierre. 1984. *Homo Academicus*. Paris: Minuit. (영역. 1988. *Homo Academicus*. Cambridge: Polity Press).

Bourdieu, Pierre. 1989. *La Noblesse d'État*. Paris: Minuit. (영역. 1998. *The State Nobility: Elite Schools in the Field of Power*. Cambridge: Polity Press).

Bourdieu, Pierre. 1991a. "The Peculiar History of Scientific Reason." *Sociological Forum* 6(1): 3-26.

Bourdieu, Pierre. 1991b. "On the Possibility of a Field of World Sociology." pp.373-387 in *Social Theory for a Changing Society*, edited by Pierre Bourdieu, and James S. Coleman. Boulder, CO: Westview Press.

Bourdieu, Pierre. 1993. "Narzisstische Reflexivität und wissenschaftliche Reflexivität." pp.356-374 in *Kultur, Soziale Praxis*, edited by Eberhard Berg, and Martin Fuchs. Frankfurt: Suhrkamp.

Bourdieu, Pierre. 1996. "Understanding." *Theory, Culture and Society* 13(2): 13-37.

Bourdieu, Pierre. 1997. *Les Usages sociaux de la science. Pour une sociologie clinique du champ scientifique*. Paris: INRA.

Bourdieu, Pierre. 2001. *Science de la science et réflexivité*. Paris: Raison d'air. (영역. 2006. *Science of Science and Reflexivi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ourdieu, Pierre, Jean-Claude Chamboredon, and Jean-Claude Passeron. 1973. *Le Métier de Sociologue*. Paris: Mouton. (영역. 1991. *The Craft of Sociology: Epistemological Preliminari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Bourdieu, Pierre. *et al.* 1993. *La Misère du monde*. Paris: Seuil. (영역. 1999. *The Weight of the World: Social Suffering in Contemporary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Durkheim, Émile. 1895. *Les Règles de la méthode sociologique*. Paris: PUF. (영역. 1984. *The Rules of the Sociological Method*. London: Macmillan).

Goffman, Erving. 1961.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New York: Anchor.

Joly, Marc. 2011. *Devenir Norbert Elias*. Paris: Fayard.

Joyce, James. 1914. *The Dubliners*. London: Grant Richards .

Weber, Max. 1922. "Wissenschaft als Beruf." pp.524-555 in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übingen: J.C.B. Mohr. (영역. 1946. "Science as a

Vocation." pp.129-156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국역. 2002. "직업으로서의 학문."『막스베버 사상 선집 I』. 전성우 역. 나남).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에서 사회학 강좌를 맡고 있었다. 그는 유럽사회학센터, 『사회과학연구지』(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를 이끌었고, 2002년에 작고할 때까지 출판사 레종다지르(Raison d'agir)를 경영했다. 그는 사회과학의 고전의 반열에 이른 다수의 저서들의 저자이다. 예컨대 『재생산』(1970), 『실천에 대한 이론 연습』(1972), 『구별짓기』(1979), 『호모 아카데미쿠스』(1984), 『예술의 법칙』(1992), 『파스칼적 명상』(1997) 등이 있다.

김홍중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회 이론과 문화사회학, 문학 · 예술사회학이 전공이며, 현재 서울대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마음의 사회학』(2009)이 있다.

[2013. 2.1 접수; 2013. 2. 15 게재확정]

• English Abstracts •

In Praise of Sociology: Acceptance Speech for the Gold Medal of the CNRS

Pierre Bourdieu
Collège de France
(Translated by Hong-Jung Kim)

Before I delight in the pleasure of receiving the gold medal accorded by CNRS, I would like to reflect upon the few basic characteristics of sociology. First of all, sociology is solid empirical science outfitted with its own methods, concepts, and models. The reason for which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sociology are often put into question is not because sociology represents a non-scientific discursive system based upon common sense which is similar to journalistic information, but it is because sociology seeks self-reflection through the objective investigation of its own status as science. Secondly, this reflexivity is often applied to other sciences in the form of sociological analysis of scientific fields. Instead of considering scientific knowledge to be absolute, sociology strives to reveal, in a critical manner, the social unconsciousness of scientific knowledge by analyzing the structural constitution and operations of scientific fields. Finally, as the power of the market becomes stronger, and as the state has more opportunities to use sciences to manipulate citizens, sociology can and should function as a critical vehicle that counters such abuse of power. In this sense, sociology is defined as a public service and as a critical counter-power.

Key words: scientific field, social unconscious, scientifique City, reflexivity, counter-power, public service